

서 볼 수 있는바라 하겠다. 實測値는 (cm)……總高一五一 肩幅七七 膝幅一〇一 臍幅三一 全厚九五 頭高四九 胸高四八 膝高一九 胴體厚三六이다.

現存 巨大한 新羅代의 金銅製 或은 鐵製佛像으로 是 造成年代가 뚜렷한 寶林寺 鐵造毘盧舍那佛<sup>④</sup>과 到彼岸寺 鐵造毘盧舍那佛<sup>⑤</sup>을 비롯佛國寺 金銅阿彌陀如來坐像과 毘盧舍那佛坐像 그리고 實相寺 鐵造如來坐像、證心寺 鐵造毘盧舍那佛 等이 있는데 여기에 紹介하는 仙源洞 鐵佛坐像은 그 形態尊容이 같지 않음으로 彫刻上 이들 羅代佛과 同一치 않은 部分도 있다. 그러나 大體로 均整한 姿勢나 堂堂한 兩肩과 胸部、그리고 膝部의 鄭重하고 安定한 樣式手法으로 보아 以上의 諸鐵佛과 같기 보다는 오히려 吐含山 石窟庵本尊의 姿態를 聯想케 하고 있다<sup>⑦</sup>. 勿論 造成材料가 相異하다 할지나 그래도 佛像造成樣式의 系譜는 그 材料에 拘礙됨이 없이 더듬어야 될 것으로 意料되는 바 한편 地域의 으로 볼 때 도 이곳 永川과 慶州와는 咫尺之間이므로 吐含山의 佛像造成樣式도 充分히 踏襲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sup>⑧</sup>.

그러므로 筆者는 이 鐵佛이 石窟庵本尊의 造成手法을 充分히 이어받고 具現한 바로서 前記한 諸佛像보다는 年代가 앞서는 이른 바 八世紀末의 造成으로 推定코자 한다. 各部樣式에 있어서도 實相寺 鐵造如來坐像이나 長谷寺 鐵造藥師如來坐像、寶林寺 鐵造毘盧舍那佛坐像、佛國寺 金銅阿彌陀如來坐像 等보다는 오히려 堂堂하고 均整한 手法을 보이고 있어 亦是 新羅盛代의 秀作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끝으로 願컨대 이렇듯 貴重한 鐵佛이 發見調査된 것은 多幸이나 이 遺物의 健實한 保存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註① 愼氏는 現在 臨皇面の 公醫로 있으며 이 地方有志로서 地理歷史에도 博識하다는데 처음 鐵佛을 發見한 것도 愼氏였다고 한다. 氏의 말에 依하면 本是 이 곳에 遺存하였는지 與否는 모르나 三年前에 이 洞里를 探訪하여 비로소 이 鐵佛을 過眼하였고 이후에 面內에 所聞이 났다한다.

② 鄭氏의 一定한 居處와 行方은 알 수 없다하며 恒時 出他中이라 하는데 筆者가 訪問時에도 安東地區의 布教次 떠났다고 하며 出他한 지 오래되었다고 한다.

③ 法堂入口에 「檀紀四二八二年陰四月初八日……」의 「發願文」이 揭示되어 있다.

④ 萬若 오래前부터 出土되었으면 반드시 調査資料에 紹介되었었을 巨作이다.

⑤ 新羅 憲安王三年——八五八年 造成

⑥ 新羅 景文王五年——八六五年 造成

⑦ 左肩에서 내려진 衣帶나 兩膝과 法衣의 앞자락 等은 兩佛像이 恰似하다.

⑧ 地理의 으로 보아 遠距離의 것보다는 가까운 慶州의 諸樣式手法을 쉽게 踏襲할 수 있다.

資 料

泗川灣을 中心한 先史遺蹟

金 相 朝

泗川灣을 中心하여 無數히 散在해 있는 先史時代遺蹟을 앞으로 어느 學術團體에서 調査함에 있어 參考가 되고 질잡이가 될까하여 所在地名과 數字만을 밝혀두기로 한다. 泗川이라고 하면 그리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 南端海岸의 조그마한 郡이기도 하다. 그러나 無數한 支石墓와 貝塚들이 散在해 있다.

晉州에서 十二km南으로 달리면 泗川郡所在地인 泗川邑에 이른다. 邑에서 東쪽으로 뻗은 길이 바로 統營 固城을 잇는 統固線街道이다. 邑에서 約三km許에 正東面所在地에 이르고 이곳 前方、一〇〇m路邊에 淸津狀記念碑가 서 있는데 이곳에서 東쪽 江진너 마을이 魯川里다. 이 마을 入口 畚中心에 民墓가 一基있는데 그 周圍에 支石墓三基가 있고 東進하던 固城境界線 못미쳐 江右면으로 좁다랗고 길게 뻗은 들판이 있으니

골 鶴村里와 所谷里의 中心地帶로서는 가운데 支石墓가 十三基 散在하고 있으며 規模는 가장 큰 蓋石이 길이 三m 넓이 二m 두께 七〇cm 정도이다. 이곳 東쪽 所谷國民學校마을 끝나는 곳 河川敷地에 伊大利포루가 數百株 서있는데 具宗在氏가 開闢한 곳으로서 개간 當時 石箱墓가 二〇基程度 破壞된 것을 確認했고 現在 밭두렁에 一部 露出된 石箱墓가 二基 있는데 特異한 것은 天蓋石을 덮고 그위에 흙을 덮고 또 天蓋石을 一律的으로 덮어 三次 四次 되풀이된 것이다. 이곳 住民들 말에 의하면 그 밭속에는 數를 헤아릴 수 없게 많이 묻혀있다고 들하며 相當數의 石劍類가 發掘되었으나 몇장수에게 팔려갔다고 한다. 泗·固境界를 넘어 約一km 東進하면 『白雲마을』에 이르는데 마을 못미처 車道右側 논두렁에 비스듬히 支石墓 一基가 있고 이곳에서 한참 달려오면 固城行과 三千浦行의 三街里 即 固城郡上里面所在地다. 固城街道쪽으로 이 마을끝에 右편을 보면 논두렁에 二列東西橫列로 제법 규모가 아담한 八基의 支石墓를 볼 수 있고 이곳에서 約一五〇米 山麓쪽에 獨立松 밑에 支石墓 一基가 露出되어 있다. 이곳에서 조금 東進하면 民墓塚 車道右편에도 支石墓 一基가 있으며 鳥山里民家 세채가 있고 이곳 崔井煥氏宅에서 約三〇〇m 車道左側 畚中 돌무덤속에 支石墓 一基가 있는데 後世의 누구의 짓인지 한쪽 支石을 빼내고 支石안쪽을 네모꼴로 磨石하여 某觀察使의 功績을 記錄하고 있다. 『무실마을』 右側民墓周邊에 支石墓 二基가 있고 破壞된 것이 三基程度(돌을 깨뜨려서 使用)가 있다. 이곳에서 泗川邑所在地로 되돌아와서 三千浦行 國道를 四km 달리면 泗川面所在地 네거리 에 다다른다. 이곳에서 方向을 바꾸어 東쪽길을 擇하면 亦是 固城 三千浦로 가는 길이다. 이 네거리의 마을이 바로 兵屯마을이다. 이 마을 부터 花田, 牛川에 이르기까지 車道左右편에 無慮 十三基의 支石墓가 散在해 있고 三千浦行을 擇해 東南進하면 晋州와의 分界이며 現在 固城郡 下二面과의 境界地點인 『晋分界마을』에 이르른다. 마을 못미처 丘陵左側에 支石墓 二基가 있고 이 마을에서 밭을 일구다가 六七年七月 薄石 打製石斧 一點을 採集한 것을 筆者가 保管中이며 이곳에서 조금더 南進 하면 固城과 三千浦의 境界線이 나온다. 왼편 들복판에 보이는 것이 固

城郡下二面 鳳峴國民學校이다. 이 길을 擇해 가노라면 雲興寺入口 獨立家屋이 나온다. 이집 앞에 巨大한 自然石을 세워 某氏의 紀績碑로 삼고 그 옆 一本木아래 支石墓 一基가 있다. 이곳에서 雲興寺로 가지않고貯水池쪽으로 한참 달려면 三千浦境界 못미처 石芝里 陰村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 前方五〇m 許의 車道左側 畚中에 一基가 있고 더 西進하면 沙登里에 이르른다. 이 마을 右側에 五〇高地가 있고 道路左右側各一基씩 二基가 있다.

이 번은 三千浦市街에서 泗川郡廳所在地로 向해 거슬러 北上하게 되면 境界線마을 德谷里에 이르른다. 이곳에서 六七年八月 밭을 논으로 고치다가 石箱墓가 發見되어 青色도 찬란한 管玉 九個가 採集된 것을 確認했다. 조금 北進하면 釜谷 마을에 이르른다. 마을에 二基가 있고 이곳에서 白川다리를 건너 마을의 左側들판 即 『琴聞들』에 貝塚이 있고 이곳에서 六七年十一月 本人이 打製石斧 二個를 採集 保管中에 있으며 右側으로는 龍峙貯水池가 보인다. 이곳 入口丘陵에 民墓가 보이고 이 墓의 바로 옆에 二基가 남아 있으며 北上하여 松旨里에 이르른다. 이 마을에는 民家門앞에도 石箱이 바른 形態 그대로 남아 있는데 天蓋石은 없으며 露出되어 確認할 수 있고 뒷걸발에서 數基의 石箱墓가 파괴되어 이곳에서 出土된 土器는 相當數에 이르렀으나 모두 어린이들의 소꿉장난으로 파괴되고 말았다. 本人도 現地를 踏查하여 파괴墓를 數基 確認했고 西편 民墓塚에 北方式 그대로 一基가 웃쪽 서있는 支石墓를 볼 수 있고 이곳에서 北쪽 民家에 發掘된 돌전구 三點이 保存되어 있다.

다시 車道에서 北進하면 新復里에 이르른다. 이곳에도 二基의 支石墓가 있고 다시 北進하면 史蹟第五〇號로 指定된 있는 船津山城入口마을 『석거리』에 다다른다. 이곳 右側 即 東편에 烽臺山이 웃쪽 웃고 골짜구 내에 庵子가 있으며 이 山麓에 吳大泳氏의 先山이 있는데 이 周圍에 十餘基의 支石墓가 散在하고 있다. 다시 北上하면 泗川邑入口 月城里에 다다른다. 이 마을에서는 年前에 石鏃, 石劍, 勾玉等이 發見된 바 있다. 다시 泗川邑에서 尙州線을 擇해 東北行을 하면 두 갈래길이 나온다. 右側길을 擇하면 李朝巨儒 李楨先生과 李朝清白吏 醒醜 金德減先生을 회

龜溪書院골이다。書院 못미처 白山골이 右側으로 있는데 이곳에도 支石墓가 一基 있다。다시 되돌아나와 左側길을 擇하여 東北進할라치면 斗良貯水池가 左側으로 보이는데 이 곳의 水門 옆에 碑가 서 있는데 이 碑 地點이 바로 三國時代 古墳으로서 靑銅劍과 勾玉목거리 등이 發見된 것을 日本人監督이 갖고갔다고 當時 目擊한 村老가 이야기해준다。이곳에서 좀더 달리면 『관음마을』에 다다른다。이곳 西北쪽 傾斜진 발두령에 보면 民墓 옆에 支石墓 一基가 보인다。

다시 泗川邑에서 根洞面事務所 앞을 지나 昆陽쪽으로 가노라던 上塔中塔 下塔하는 마을 앞을 지나는데 이 골짜구니 절터 近方에서 石劍과 土器가 採集된 바 있고 河東郡 辰橋線을 달리 昆陽面에 이르른다。이곳에서 河東辰橋線을 버리고 西浦線을 擇해 四岫를 달리면 面所在地가 나오 고 이곳에서 東進하면 六七年 檀大에서 發掘한 貝塚이 나오고 그 인근에 五個處의 貝塚이 있고 東쪽 海岸 自惠里 九浪里 西쪽 長橋를 바라보는 金津里 一帶 海岸線에 槐木의 化石群이 출몰하다。그리고 海中 多坪里 附近에는 百坪에 가까운 貝塚이 있다고 傳하나 踏査를 못했다。이곳에 羅列된 支石墓만 해도 七十九基에 達하니 하루 速히 어느 學術團體에 依해서 調査가 이루어져서 報告書라도 남겨야지 점점 허무러져 가고 있 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忠南 散逸文化財

— 聖住寺金屬佛・普願寺石塔金屬相輪・伽倻寺石塔 其他 —

李 殷 昌

一、聖住寺金屬佛像

忠清南道保寧郡嶺山面聖住里에 聖住寺址가 있으니 이는 新羅末 無梁 大師가 創立한 禪宗九山門의 하나인 聖住山門으로 많은 石造遺物①이 남 아 있다。이 聖住寺址에 對하여는 學者間에 論及된 바가 많고 筆者도 數

次에 걸쳐 寺址를 調査하여 中門址②・金堂址③・逸名碑의 龜趺④와 螭 首等에 對하여는 本誌에 紹介한 바도 있다。그런데 調査時에 金堂에 金 屬佛像이 있었다는 事實을 알게 되었다。이 佛像을 目擊하였다는 寺址 의 部落에 居住하는 李秉鎬老人은 말하기를、

「韓日合併무렵 一進會에 關係하던 日人이 와서 솔을 만들기를 위하여 鴻山 三千里 솔밭에 運搬하여 갔는데 그 佛像은 座臺위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그 크기는 成人이 佛像 무릎위에 서서 겨우 귀를 손으로 만질 程度이었으며 쇠부처(鐵佛)로 생각되며 훌륭하였다」

고 하였다。이것으로 ①聖住寺 金堂址에는 韓末日帝初까지 金屬佛像이 있었던 것이 確實하고 ②鴻山 二千里 솔밭 運搬 云云은 거짓이고 日人에 依하여 流出된 것으로 推測되며 ③羅末麗初에는 鐵佛鑄造例가 많았으니 或鐵佛이 있는지도 모르며 ④크기는 確實치 못하나 相當히 큰 佛像이 있 던 모양이다。特히 寺址調査時에 金堂址에서 石造蓮花座臺破片을 調査할 수 있었으니 이에 石造座臺上에 金屬佛像이 安置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一九六一年 八月 二十三日에 上述한 龜趺와 螭首를 扶餘博物館에 運搬할 때 寺址에서 逸名碑片⑤ 三個가 나왔는데 碑片 其一에 助成功 德⑥(二〇) 檀園題爲月麟⑦ 租稻 充入鑄像工價 魏斯伊⑧ 文紫磨金色臨寶座 以益光⑨ 之堂租稻已至於寺困⑩ 運⑪ 宜和夫人是允與伊⑫ 溇溪高峯尋曰年 月⑬)

라 하는 記銘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判讀할 수 있는 碑銘中에서 「……租稻充入鑄像工價」云云한 「鑄像」은 이 聖住寺 金堂金屬佛像을 말 하는 것으로 推定되며 그리고 「……金色臨寶座以益光云云」한 것은 金堂 金屬佛像의 燦爛한 모습을 말한 것 같이 생각된다。 既知의 事實이지만 이 逸名碑銘은 新羅末의 것이니 金堂鑄像이 이 碑銘과 關聯되는 것으로 보고 그 鑄造年代는 新羅末이라 하겠다。

二、普願寺 五層石塔 金屬相輪

忠清南道瑞山郡雲山面龍賢里에 普願寺址가 있으니 이는 高麗初에 法 印國師가 創立한 印刹이었다。 亦是 많은 石造遺物이 現存하고 일찌 기 學者들의 關心이 集中된 일도 있다。 筆者는 이 寺址를 調査報告⑭한